

남정현 기자의 피버피치

## 스스로 '원칙' 깨버린 무책임한 대한축구협

'대표단 단장은 협회 임원 중에 선임' 규정  
임원급 아닌 황보관 본부장을 단장에 앉혀

과거 대한축구협회(KFA)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표현이 있었다. '밀실 행정' 그리고 '회전문 인사' 등이다. 좁은 판에서 내 편, 내 편으로 쪼개져 다름을 벌이는 축구인의 모습은 참 한심했다.

그래도 항상 똑같진 않았다. 2018러시아월드컵을 기점으로 정몽규 KFA 회장은 확 달라진 축구계를 예고했고, 참신한 인재들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거치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17세 이하(U-17) 월드컵 8강,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우승의 달달한 결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 초부터 기류가 달라졌다. 정 회장이 3선 임기를 시작하고 K리그1(1부) 울산 현대 지휘봉을 잡은 흥명보 전무가 떠난 이후부터다. 이용수 부회장과 박경훈 전무, 황보관 대회기술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가 꾸려졌다.

이 과정에서 흥 전무 시절, 개혁 시스템의 중심에 섰던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이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았다. 김 위원장의 권한 축소에 대한 의문이 시작된 계기다. 집행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KFA 외부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은 "누가 봐도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배경은 8강 진출이란 '절반의 성공'에 그친 도쿄올림픽이었다. 김학범 감독은 3년 간 동고동락한 조력자 없이 외로운 싸움을 했다. 올림픽대표팀 단장을 황보 본부장이 맡아 빚어진 사태다. 또 주요 대회마다 동행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던 테크니컬스터디그룹(TSG) 위원도 도쿄 현장을 찾지 않았다.

KFA는 "올림픽 특성상 대회 출입증(AD카드)이 부족해 선수단 행정 전반과 기술적 사항에 대한 업무 능력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월드컵 등 메이저대회 출전과 행정 경험을 지닌 황보 본부장이 적임자라 판단했다. TSG 위원도 출입증 문제로 파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KFA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스스로 규정을 어겼다. KFA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4항에는 "협회는 필요하다 판단되면 각급 대표단에 단장을 선임한다. 단장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으로서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인에 가까운 김 위원장이 현역 시절 월드컵 커리어가 없고 황보 본부장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임원은 아니다. KFA 조직도에 따르면 임원은 ▲회장·부회장 ▲전무·본부위원장 ▲이사를 의미한다.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배경이라도 공개했어야 했다.

결국 이 결정을 내린 협회 수뇌부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명쾌한 잘못이 파악된 만큼 이를 해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어떠한 조직도 그들의 규칙이 깨진 사태를 덮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저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복지부동하는 태도는 한국축구를 관장하는 조직의 모습이 아니다.

yoshike3@donga.com

### 'FC서울전 연속골' 바코, 27R 최우수선수



바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울산 현대의 외국인 공격수 바코(28·조지아)가 '하나원큐 K리그1(1부) 2021' 27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바코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원정경기에서 전반 27분과 33분, 연속 골을 터트리며 울산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K리그에서 처음으로 멀티 골을 성공시킨 바코의 활약이 두드러진 서울-울산전은 27라운드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27라운드 베스트 팀에는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데비'를 포함한 3-0 대승으로 장식한 수원FC가 뽑혔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 U-23대표팀과 '3년 여정' 마치고 굿바이

# "내 역할은 도쿄까지"... 김학범 감독 떠난다



KFA에 "재계약 안한다" 입장 전달  
AG 2연패·U-23 전승우승 이끌어  
당분간 휴식 후 유럽축구 연수 계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61)이 다시 아인으로 돌아갔다. 2020도쿄올림픽을 끝으로 7월 31일 대한 축구협회(KFA)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그는 재계약 여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FA 소식통은 26일 "김 감독이 KFA 고위 인사를 만나 자신을 차기 U-23 대표팀 사령탑 후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으나 본인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KFA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입장을 전달했다. 내 역할은 도쿄올림픽에서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김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을 반년 앞둔 2018년 2월 시작된 U-23 대표팀과의 짧고도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AG 성과로 실력을 검증 받았다"며 한시적 임기(6개월)를 받아들이는 그는 2014년 인선대회에 이어 AG 2연패의 금자탑을 세우면서 도쿄올림픽 본선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그 후 김 감독은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해 2020년 1월 태국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전승 우승을 이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1년 미뤄진 올림픽 본선을 8강(최종 5위)으로 마감했다.

U-23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김 감독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공백이 마냥 길어질 것 같지 않다. 오랫동안 하지 못한 유럽축구 연수를 떠날 참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한 유럽 내 주요 빅 클럽들과 접촉하고 있다. 단순히 경기를 관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준비와 훈련 프로그램까지 깊이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공부하는 지도자'로도 정평난 김 감독은 성남 일화와 강원FC, 성남FC, 광주FC(이상 K리그), 허난 전예(중국) 등 국내·외 프로팀 지도자로 활동할 때부터 틈틈이 유럽과 남미, 북중미 지역을 꾸준히 찾아 현대 축구의 흐름을 파악해왔다.

한편, 김 감독이 공식적으로 후보군에서 제외된 U-23 대표팀 차기 사령탑으로 KFA 내부적으로 몇몇 특정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축구계는 확실한 검증 작업과 명확한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주도하는 감독선임소위원회가 검증된 후보를 KFA 수뇌부에 추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KFA에서는 명쾌한 근거와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KFA 수뇌부가 특정 지도자를 원한다고 해서 선임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의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U-23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3년여 여정을 마치고 공식 이별을 알렸다. 그는 최근 KFA 고위층과 만나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인'으로 돌아간 그는 유럽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3위 점프·3연패 늘...수원더비 '엇갈린 운명'

(수원FC) (수원삼성)

2021시즌 3번째 '수원 더비'에서 운명이 엇갈렸다. 한때 골짜기였던 수원FC는 3위로 올라선 반면 수원 삼성은 무승의 늪에 더 깊이 빠졌다.

수원FC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1부) 27라운드에서 짝스, 이영재, 양동현이 연속 골을 터뜨려 장외의 이 퇴장당한 수원 삼성을 3-0으로 제압했다. 수원종합운동장 보수 공사로 수원FC가 8월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된 이후 첫 맞대결을 펼친 두 팀의 통산 전적은 3승1무3패 동틀이 됐다. 수원FC는 2016시즌엔 수원 삼성에 3패(1승)를 당했지만 올 시즌엔 2승1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리그 순위표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골짜기(12위)까지 추락했던 수원FC는 후반기 5승1무1패의 상승세를 타며 3위(승점 37)



수원FC 이영재(오른쪽에서 2번째)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수원 삼성과 경기에서 골을 뽑아낸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수원 더비 이후 두 팀의 행보는 극과 극이 됐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까지 올라섰다. 선두권을 위협하던 수원 삼성은 최근 7경기 무승(1무6패)의 부진으로 6위(승점 34)까지 떨어졌다.

유스팀 출신 정상빈, 김태환, 강현목이 주축이 된 '매탄소년단'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주목 받았던 수원 삼성은 부상에

수원FC 상승세...풀쳐서 대반전  
수원삼성 부상자 속출 6위 추락

발목이 잡혔다. 정상빈과 김태환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김건희는 스포츠탈장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건하 수원 삼성 감독은 "그 동안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영향이 컸다"며 부진 이유를 털어놓았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으로 마땅한 대안도 없다.

반면 수원FC는 외국인 선수들의 선전과 국내 선수들의 희생적인 플레이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 라스가 14골로 K리그1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새 외국인 선수 타르렐리와 짝스도 공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시즌 수원FC에 합류한 양동현, 박주호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수원FC 김도균 감독은 "높은 순위보다 파이널A가 목표"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더욱 강해질 수원FC가 기대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 '손흥민 단짝' 케인, 토트넘에 남는다

맨시티행 불발...SNS로 잔류 알력  
원하는 주급 40만파운드...협상 중

이적을 추진하던 해리 케인(28·토트넘)이 팀에 남기로 했다.

케인은 25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이번 여름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팀의 성공을 돕기 위해 100%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일요일 울버햄턴과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의 환영은 정말 놀라웠다. 많은 팬들의 따뜻한 메시지도 잊을 수 없다"며 감사를 전했다. 케인은 자신이 관중석을 향해 손뼉

을 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번 여름 케인의 맨체스터 시티행 여부는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케인은 인터뷰 등을 통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며 이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맨시티 이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맨시티는 1억2700만 파운드(약 2034억 원)까지 이적료를 높여가며 토트넘에 제의했으나, 토트넘은 1억5000만 파운드(약 2405억 원)를 받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2일(한국시간) 울버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박수와 환호



손흥민(왼쪽)과 케인

로 따뜻하게 케인을 환대하자 그의 마음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케인은 초반에는 다소 냉담한 표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반전에는 손흥민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누볐다.

케인의 잔류로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손흥민은 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환영했다. 토트넘의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파코스 페헤이라(포르투갈)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 끝났고, 케인은 우리와 함께한다. 모두에게 환상적인 뉴스"라며 반겼다.

한편, 케인이 팀에 남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케인과 토트넘 구단은 계약 연장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에 따르면, 케인이 원하는 주급은 EPL 최고 수준인 40만 파운드(약 6억4000만 원)다. 케인의 현재 주급은 30만 파운드(약 4억8000만 원)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